

Oct 21, 2008 05:53 PM KST

[김준헌 칼럼] 고령화 시대와 임플란트 역할!

최근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이용해 부모님들의 주름을 펴드리려는 자식들의 효심이 성형외과를 기웃거리고 있다. 물론, 적당한 성형 시술은 외관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부여한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보이는 모습이 전부 가 아니란 사실이다.

특히 겉보다는 속이 중요한 치아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찾아오는 충치나 풍치, 치주염으로 인해 하나 둘씩 치아가 상실되거나 오랜 흡연과 음식물 착색으로 앞니가 까맣고 누런색을 띠기 쉽다. 또한 씹는 게 어려워지면 기력까지 쇠하니, 부모님들의 얼굴이 한층 늙어 보이는 것이다.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 치과)

만약 부모님이 치아를 상실했다면, 빈자리에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를 이용해 저작력을 높이고 얼굴 변형을 막아 자신감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CT 촬영 도입과 수면 마취로 신속하고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병원을 찾고 있다. 치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간단한 치아 미백만으로도 환하고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

강남 화이트스타일 치과 김준헌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 도래하면서 좀더 젊어 보이기 위한 방법이 많이 소개되었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며 "자연 치아가 상실되기 전에 올바른 치아 관리법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부모님들의 입 속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1577-7287